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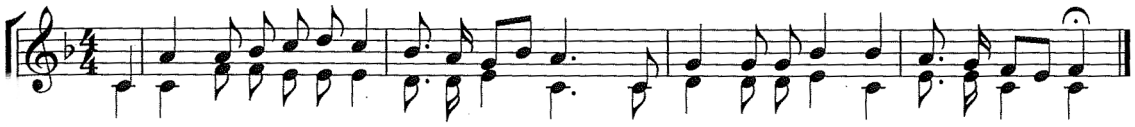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김순진(요셉) • 보좌 신부 : 주국돈(마르티노)
사목회장 : 김도호(시메온) 267–992–5462 • 연령회장 : 김항규(안드레아) 201–874–4497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107 천사의 찬송
제 1독서 : 민수기 6,22–27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독서 : 갈라티아서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 음 : 루카 2,16–21
봉헌성가 : 254 하늘의 여왕
220 생활한 제물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체성가 : 237 주 예수 어머니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성가 : 256 천상의 어머니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7시	연	김광배(토마스)	김명주	영원한 안식
	생	김순진(요셉)신부님 주국돈(마르티노) 신부님	성로사	영육간 건강 주님 축복
10시	연	박형식(베네딕도) 박사훈(토마스)	박규민	영원한 안식
		김오차(요셉)	김지애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10시	연	조종국(요셉) 김기임(마리아) 성정모 이은자(마리아)	로사	영원한 안식
		조현수(라파엘) 조현우(가브리엘)	로사	
	생	신년 가정축복 기원 미사		

새해에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시길 ...

지난 한해 홀리 엔젤스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신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많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 신부 : 김순진(요셉)
보좌 신부 : 주국돈(마르티노)
사목 회장 : 김도호(시메온)

제 5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인공지능과 평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때인 새해를 시작하며, 하느님의 백성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우리가 창조주께 받은 존엄을 표현하며, 과학과 기술은 인간 지능의 창조적 잠재력이 빚어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뛰어난 성취 덕분에 인류의 삶을 괴롭히고 커다란 고통을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술 – 과학의 발전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은 커뮤니케이션, 공공 행정, 교육, 소비, 개인 상호관계,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의 수많은 측면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상 언어가 되어 버린 "인공 지능" 용어 자체에는, 기계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그 기능 안에 재생하거나 모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과학, 이론, 기술이 망라됩니다. 아무리 놀랍고 강력하다고 한들, 결국 이 지능의 유형들은 인간 지성의 특정 기능들을 모방하거나 재생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일 뿐이며, 어떤 인공 지능 장치도, 장치 소유자들과 개발자들의 목적과 이윤 그리고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알고리즘과 디지털 기술을 설계하는 이들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무한 확장에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책임 교육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혀 기술-과학 연구가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한 발전에 봉사하면서 평화와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은 데이터 축적과 구조화와 확인 과정의 혁명은 물론 고된 노동에서의 해방, 더욱 효율적인 제작 공정, 더 편리한 수송과 더욱 준비된 시장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빠른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기본 인권을 보호하며,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제도와 법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변화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공 지능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왜곡 심화로 이어지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동원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기술이 중대한 위험을 생겨나게 하는 분야로 사생활 보호, 데이터 저작권,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오용에 따른 또 다른 부정적 영향에는 차별, 선거 개입, 감시 사회의 증대, 디지털 배척, 점점 사회와 유리되는 개인주의의 팽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분쟁을 부채질하고 평화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다양하며 복합적이어서 완전히 파악하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계량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닿을 수 없는 영역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인공 지능이 분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결코 그 자체로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정보를 추론할 때는 언제나 왜곡의 위험이 따르며 정보가 생겨난 환경이 지닌 불의와 편견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능형' 기계는 맡겨진 과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작동의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고유한 가치 체계를 소유한 인간이 결정하거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결정들을 내리는 기준들은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 결정의 책임이 은폐되며, 생산자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군사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은 이것이 야기하는 파괴에 대한 인식과 그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켜, 전쟁의 엄청난 참상을 점점 더 냉담하고 무심하게 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교한 무기가 결국 그릇된 자들의 손에 들어가, 이를테면 합법적 정부 체제의 제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나 개입을 조장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공 지능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이는 농업, 교육, 문화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며, 인간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소통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관계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인공 지능의 유형들 사용에 관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인공 지능의 전 세계적 규모는 그 국내 사용을 규제하는 주권 국가의 책임과 더불어 국제 기구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과 집행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양한 유형의 인공 지능의 발전과 사용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하고자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국제 공동체가 함께 힘써 주기를 권고합니다.

인공 지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는 가난한 이들, 이주민들, 그리고 국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흔히 무시되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저는 인공 지능이 발전하는 유형의 행보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형제애와 평화에 기여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몇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인류 가족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인공 지능 유형들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의의 사례들을 늘리지 않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2024년 신년 메세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콜로 3,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최근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기에, 우리는 모두 평화가 간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내려 주시길 청하며, 우리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전체 교회 구성원이 참여한 이번 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해 줍니다. 하느님, 이웃, 나 자신과 '친교'를 이루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복음의 논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를 실천하며, 세상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참여'를 증진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모두 바라 마지않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노드 교회'를 향해 걸어가며,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행복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